

“곳곳에서 원융과 통합의 길 열릴 것”

■ 법전 스님

조계종 종정



무자년(戊子年) 새해 아침이 밝으니 위광(威光)이 대천세계(大千世界)로 뻗어나고 천지(天地)의 서기(瑞氣)가 집집마다 쌓이니 이르는 곳마다 감로문(甘露門)이 열립니다.

하늘에서 진리의 우뢰가 일어나고 사방(十方)에 가득한 장애(障礙)가 사라집니다. 곳곳에서 원융(圓融)과 통합(統合)의 길이 열리고 범성(凡聖)은 차별(差別) 없는 일미(一味)를 이루니

범부(凡夫)는 번뇌(煩惱) 속에서 부처를 빚어내고 빈녀(貧女)는 가난 속에서 안락(安樂)의 대시문(大施門)을 엽니다. 사람마다 이와 같은 현기묘용(玄機妙用)을 갖추니 만나는 사람이 부처요 이르는 곳이 정토(淨土)입니다.

가가년년부(家家年年富)요 풍류일일신(風流日日新)이라 집집마다 보배는 해마다 늘어나고 풍류는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일체중생(一切衆生) 위해 더욱 정진합시다”

■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 신년사

무자년(戊子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구촌 모든 생명들이 더불어 화평하고 행복하기를 축원합니다. 평화와 행복은 인류가 추구하는 최고의 덕목(德目)입니다. 나아가 인류는 이 꿈을 실현하기 위한 최선의 공동사회양식으로 공화(共和)의 전통을 창출하고 계승하여 왔습니다. (중략)



욕망(慾望)과 경쟁이 씨줄과 날줄로 교차하는 대중사회(大衆社會)의 폭풍(暴風) 속에서도, 오익중생(僞益衆生)의 본분(本分)을 잃지 않고 수행정진(修行精進)하는 사부대중(沙浮大衆) 여러분! 오랜 공화(共和)의 전통을 전승해온 화합승가의 적자답게 일체중생(一切衆生)을 위해 더욱 정진합시다. 국민여러분!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거듭 축원드립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식 갖길”

■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 신년사

무자년(戊子年) 새해에도 부처님의 가르침이 온 누리에 가득하고, 가정이 행복하고 가족이 건강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제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불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진실하고, 사랑스러운 말을 하고, 나의 능력을 남을 위하여 베풀고, 말이 앞서기 보다는 실천을 통하여 믿음을 주고, 함께 동고동락(同甘同樂)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생활을 하도록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사십법을 실천하고 생활화함은



로써 서로 돕고 살아가는 인정 넘치는 따뜻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중략) 우리 모두 새해에는 잘못된 생각과 그릇된 습관들을 깨끗이 불식하고 더욱 돈독한 신심으로 원력을 새롭게 하여 복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불국토 건설에 더욱 정진하도록 합시다. 우리 모두 성불합시다.

“상대의 처지에서 자신을 살피야”

■ 천대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 신년사

광명적조변하사(光明寂照遍河沙) 범성합령공가가(凡聖合靈共我家) 일념불생전체현(一念不生全體現) 육근재동피운차(六根動被雲遮)

고요한 지혜의 빛이 온 누리를 비추니 범부와 성현의 차별이 사라지누나. 한 생각 분별없으면 나타나는 도리가 번뇌 속에서는 가려지리다네.



무자년(戊子年) 새해를 맞아 온 누리에 지혜와 자비의 광명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은덕(恩德)은 돌에 새기고, 원한은 물 위에 쓴 글씨같이 흘러보낼 수 있는 열린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합니다. 모든 생명을 차별 없이 길러주는 대지와 같은 마음으로 갈등과 불화를 잠재우고, 장엄하게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새 희망의 서원을 세웁시다. (하략)

“상대자의 저 허물은 내 허물의 그림자”

■ 진각종 통리원장 회정 정사 신년사

풍요와 희망, 기회를 상징하는 무자년(戊子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중략) 진언행자 여러분, 그리고 2000만 불자 여러분! 불자들이 새해 새아침을 맞이하는 자세는 '상대자의 저 허물은 내 허물의 그림자'라고 갈파하신 진각성존 회당 대종사의 가르침을 받들어 자기의 허물을 참회하며 자비의 마음으로 상대를 이해하고자 하는 정신이어야 할 것입니다.



새해 새아침에 떠오른 찬란한 법신부처님 대일여래의 광명을 찬탄하며 우리 다함께 밝은 생각, 맑은 마음으로 새로운 내일을 위해 참회하고 정진합시다. 밝음이 어둠을 몰아내듯 시련과 고통 뒤에는 더 좋은 시절인연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진리를 좇아 나와 가족, 이웃, 사회, 나아가 국가와 민족, 인류의 안녕과 발전을 위해 다 같이 서원하고 정진합시다.

“사람 중심되는 인간신앙 세상 펼쳐지길”

■ 해초 스님

태고종 종정



去歲曹溪梅似雪(거세조계매사설) 今年仙巖雪如梅(금년선암설어매) 共知人事何嘗定(공지인사하상정) 送舊迎新豈歡喜(송구영신기환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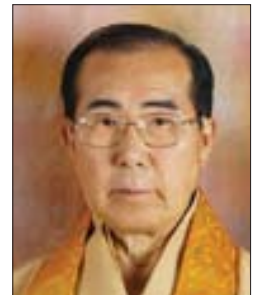
지난해는 조계峰的 매화가 눈처럼 희더니 새해에는 선암峰에 흰눈이 매화처럼 날리네. 세월이 변화하는 이치가 세상 사람들이 모를리 없거늘 묵은해 보내고 새해를 맞는 것이 무엇이 그리 기쁠소나.

새해가 되면 세상 사람들은 묵은해를 보내면서 행복한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시공을 초월하여 인간이 추구하는 화두는 행복이며, 평화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개아(僞我)의 성공이라는 욕망의 율타리 안에 자기를 가두고 지나치고 어리석은 투쟁으로 스스로 어둡고 삭막한 지옥의 세계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중략) 새해에는 호양(互讓)과 청락(淸樂)의 선비정신을 발휘하여 스스로 지옥을 허물고 서로 믿고 의지하며, 사람이 중심되는 조화롭고 향기넘치는 인간신앙의 세상이 펼쳐지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 마음으로 돌아가야”

■ 도흔 정사

진각종 총인



귀명삼보하옵고 본 종의 모든 스승님과 전 진언행자님, 그리고 모든 불교 종단의 고승대덕님과 고위 각계각층 불자 제현님께 삼가 새해인사를 드립니다.

무자년 새해에 각계각층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는 주지하신 바와 같이 나라가 안정되고 경제가 발전되어야 하며 상호화해와 상호이해 증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현의 말씀 중에는 첫째, 상대를 곧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역지사지로 바꾸어서 이해해야 한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법과 성존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며 실천하여야 할 때입니다. 종교, 정치, 경제, 교육, 산업, 문화 어떠한 분야에서도 성현의 말씀이 필요치 않은 곳이 없습니다. 각계각층이 다같이 나 자신을 용서할 마음을 갖고 남을 용서하며, 남을 꾸짖고저 하는 마음을 갖고 나 자신을 꾸짖어야 한다는 말씀은 성현이 아니면 어느 누가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같은 말씀의 본 뜻은 곧 삼세제불의 마음이며 동서고금 성현님들의 마음입니다. (중략) 모든 진언행자님과 각계각층 불자 제현님께서서 하루하루 부처님 마음과 성현(성존)의 마음으로 돌아 오셔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곧 모든 난제를 해결하고 평화와 복락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싸우지 말고 한 마음으로 염불하라”

■ 도용 스님

천대종 종정



유시유비즉불가(有是有非則不可) 무시무비우불가(無是非非不可) 시시비비야불가(是是非非也不可) 비시시비야불가(非是非非亦不可)

울으니 그르니 싸우지도 말고 울은 것도 없고 그른 것도 없다고 피하지 말며 끝까지 옳다거나, 그르다고 고집부리지 말고 울은 것을 그르다하고 그른 것을 옳다함도 안되나니 그 자리에서 한 마디를 일러 보거라.

한 등불이 능히 천년의 어둠을 지우고 한 지혜가 능히 만년의 어리석음을 없애누나. 한 마음으로 염불하여 억겁의 업장이 소멸되니 제불보살 찬탄하고 육도중생 춤을 추네.

중생구제에 12대원을 세우신

청동약사여래불 인수봉에 나투하셨습니다!

大醫王이라 불리시는 약사여래부처님 친견후 일어난 기이한 사례들...

병마에 시달린 수많은 중생들의 환희 불법수행중 선몽하여 가람불사하던 중 온전히 보전된 청동약사여래부처님께서 나투하셨습니다.

어둠속에 계셨던 부처님 이제 여법히 모시고 예를 갖추게 되어 한량없는 부처님의 가피를 여러 중생들과 함께하고자 합니다.

● 병마에 시달리는 중생... ● 삶에 지친 중생...

청동약사여래부처님과 친견하여 영험함을 몸소 체험하시면 —

확! 달라진 삶, 서광이 비칠 것을 확신합니다!

찾아오시는 길: 보덕선원, 국립재활원, 청동약사여래불, 인수봉, 동묘교목원, 4.19탑, 4.19묘사자거리

문의 **021992-0032 / 021992-7770**

* 홈페이지 참조 * www.saju8.co.kr